

8. Modeling periodic waves of integration in the Afro-Eurasian world-system

Peter Turchin

이 장은 인구의 증감에 따른 사회변화에 주목하여 중장기 사이클로 한 집단 혹은 한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걸친 지구화의 흐름도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역사주기는 인구-구조이론(demographic-structural theory)으로 인구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식량, 노동, 인구이동, 정치체제의 통합성, 그리고 역병의 발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이론은 특히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잘 적용된다고 본다.

저자는 인구-구조이론에 따른 역사의 주기를 통합과 분열의 두 주기로 크게 나누고 이를 더 세분하여 팽창, 스테그플레이션, 위기, 침체의 네 시기로 세분한다. 팽창의 시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이 자리잡고 농업생산력이 늘면서 국가의 통제력과 통합력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집단의 힘이 강화되면서 대외 팽창도 이루어져 제국화가 추진되면서 집단과 인구의 힘이 모두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인구의 영양상태가 좋고 도시화가 과밀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역병도 창궐하지는 않는다.

스테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인구 증가가 한계에 다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과밀도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집단적으로 대외 팽창도 한계에 다다르고 정치사회의 엘리트들은 최대의 번영과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점차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인구의 건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역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늘고 위기가 다가온다.

위기의 기간 중에 역병은 집단과 인구를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이에 따라 인구는 줄어들고 정치집단은 붕괴한다. 정치의 보호가 없어지면서 반란과 정치혼란이 발생하고 기존의 통합적 정치단위는 세분되어 소집단으로 나뉘어진다.

마지막으로 위기 이후에는 침체기가 찾아오는데 불안정기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대체세력이 존재하면 새로운 통합의 주기가 시작되지만 대체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침체는 오래갈 수 있는데, 각 지역별, 집단별 침체의 양상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대체세력이 곧 나타나는 반면, 군사집단이나 유목민 집단에서는 대체세력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이론은 유럽의 로마제국의 성쇠의 주기, 중세 게르만 족의 등락, 그리고 15세기 전후의 근대 진입, 17세기의 근대국가체제와 맞물려 유럽의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14세기 중반의 페스트와 17세기의 기후 변화 등은 인구-구조의 주기와 맞물려 유럽의 거시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변수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주기에 따라 한왕조를 거쳐, 당, 송, 명, 청에 이르는 주기를 설명한다. 인구의 수축과 팽창, 이에 따른 정치집단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위기를 불러오는 역병까지 유럽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동, 유럽, 아시아의 주기가 비교적 동조화될 때, 그리고 팽창기가

동조화될 때 엘리트가 강화되고 이들은 원거리무역에 의한 사치품 등을 원하며, 국가가 상업 무역로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지구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근대 시대 지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지역별 인구-구조가 팽창과 스태그플레이션에 공조화를 보이면서 발전할 때로 이는 다른 이론들, 모델스키의 지구화 이론이나,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과 시기적으로 일치할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은 다른데 이들 간의 연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근대 지구화의 주기에 대한 이론은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가 역병의 창궐과 관련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1980년대 전후 에이즈, 콜레라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증가와 인구 간의 관계에 주는 함의는 존재한다.

11. Globalisation in history and the history of globalisation: The application of a globalisation model to historical research

Catia Antunes

지구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면서 역사학에서 중시해야 할 지구화의 강조점에 대해서 논의.

브로델, 월러슈타인, 이스라엘, 아부-루고드, 프랑크, 아리기 등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특히 월러슈타인-프랑크 논쟁을 중시. 월러슈타인은 세계체제를 잘 짜여진 중심-주변의 기축분업 체계로 여기고 역사적으로는 세계화가 정교화된다는 사회과학적 목적론을 가지고 있음. 이에 반해 프랑크는 근대 이전의 세계화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근대에서도 세계체제와 외부체제 간의 관계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

저자는 헬드의 개념과 구분을 가져오면서 지구화가 사회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처럼 방향성을 가진 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에 반대. 역사학자는 지구화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다른 지구화들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나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반대.

지구화를 정의하면서 헬드의 정의를 가져다가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제 측면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통합적, 동적, 상호의존적, 지구적 특성을 가진다고 논의. 역시 헬드에 따라 초지구화론자, 회의론자, 변환론자(transformationalists)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변환론자들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지구화를 분석.

표에서 보이듯이 지구화의 주된 차원을 시공적 차원에서 팽창성, 내부적 통합성, 속도, 그리고 영향력으로 나누어 분석. 이러한 지구화가 조직차원에서 어떠한 인프라, 제도화, 지구적 위계화, 주도적 상호작용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Table 11.1 Historical forms of globalisation—an analytical framework

| <i>Key dimensions</i> | <i>Key characteristics</i> |
|---------------------------|--|
| Spatio-temporal dimen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ensity of global networks • Intensity of global interconnectedness • Velocity of global flows • Impact propensity of global interconnectedness |
| Organisational dimens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structure of globalisation • Institutionalisation of global networks and the exercise of power • Pattern of global stratification • Dominant modes of global interaction |

Source: Held *et al.* (1999: 20).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각각의 지구화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가장 강한 지구화는 19 세기의 지구화로 분석. 이에 비해 20세기 지구화는 강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봄. 저자는 월러슈타인-프랑크 논쟁에 관련하여 근대 이전 중세기의 세계화와 15세기 이후의 세계화를 비교함. 교환되는 물품의 종류 및 인프라, 제도적 뒷받침 등을 비교하여 근대의 세계화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 조직적 차원에서 물리적, 법적, 상징적 차원의 인프라가 지구화를 촉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분석하면서 근대의 세계화가 더 심도있는 것이었다고 분석.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브로델의 총체적 역사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

Table 11.2 The spatio-temporal dimension: types of historical globalisation

| <i>Type</i> | <i>Features</i> | <i>Historical period</i> |
|-------------------------|--|--------------------------|
| Diffused globalisation | High extensity High intensity High velocity Low impact | Twentieth century |
| Thick globalisation | High extensity High intensity High velocity High impact | Nineteenth century |
| Expansive globalisation | High extensity Low intensity Low velocity High impact | Early Modern period |
| Thin globalisation | High extensity Low intensity Low velocity Low impact | Medieval period |

Source: Held *et al.* (1999: 20).